

Dyke

2002/7-8

다이크(Dyke)는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소식지로
우리 단체의 활동과 동성애자들의 현안을
다루는 격월간 신문입니다

발행일: 2002년 7월 6일 | Tel: 2235-7422 | Fax: 2231-7422 | 서울시 중구 신당동 121*1 중앙빌딩 402호
www.outpridekorea.com | 발행처: 동성애자인권연대 출판부 발행인: 임태훈 편집: 양지음

성전환자 호적 변경

부산지법 가정지원: 국내 최초로 심리적 요건만으로 호적 변경 판결



엑스존 소송관련 사진

7월 3일 부산지법 가정지원장 고종주 판사는 심리적 요건만으로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은 생물학적 요건, 즉 염색체에 의해 판단해 왔는데, 이는 성이 사회적, 심리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최초의 법적 판단이다.

고종주 판사는 성전환자인 윤모(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30/서울 용산 거주)씨가 신청한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호적 기재 당시 착오에 의한 성별정정이 아닌 외과적 수술을 통해 성을 바꿨을 경우는 호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성전환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 헌법이념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7월 4일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성정체성의 개인적 결정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김홍신 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성전환자 호적 변경 법안'의 입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8-9면]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난맥상 보여

국립보건원: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급 중단 시도

지난 5월 한국의 에이즈 정책을 총괄하는 국립보건원은 그간 에이즈 감염인에게 지급되던 치료비 일부(건강보험 비급여부분 중)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인련과 보건의료단체연합, Love4One(HIV/AIDS 감염인 단체) 등은 이 결정의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국립보건원은 앞으로 무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비급여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건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11면]

국가인권위원회 동인련 활동가 채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3월 우리 단체의 활동가인 레즈비언을 직원으로 채용해 현재 차별조사국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채용은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 경력을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달의 기획

엑스존 행정소송
트랜스젠더 호적 변경

새 사무실 잡들이

일시 | 7월 6일 오후 3시
장소 | 동인련 새 사무실
3-7시 | 간단한 다과
7시 | 사업발표
8시 | 간단한 술자리가 있습니다

상근시간 변경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동대문전차국

신당동 사거리	-----< 을지로 방향 ----->	☐ 2호선신당역 4번출구
☐ 6호선신당역5번출구 출입파출소	● 나이키대리점	
	☐ 금강산 약국	
	● 중앙빌딩 402호 동인련	

사업계획

동성애자인권연대 중장기 사업계획

상담사업

동인련은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상담이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그간 진행해왔던 산발적인 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성적소수자들의 생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1단계: 온라인 상담

2002년 9월 동인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시작

2단계: 전화 상

온라인 상담을 바탕으로 상담 프로그램 개발(2002년중)

2003년 H.O.T. (Hope Opens Tomorrow) Line 프로젝트 시작

쉼터사업

성적소수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판단하에 도움이 필요한 성적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쉼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3년 상반기: 당위 확보를 위한 연구

- 성적소수자 보호시설 필요성 연구 진행

2003년 하반기~2004년 하반기

- 체계 정립, 인선, 재정확충 사업

2005년 상반기 - 쉼터 개소

연구사업

성적소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정황적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의 성적소수자들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인권 침해, 차별, 커뮤니티 구성, 에이즈 정책 등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협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연구결과 발표, 논문, 단행본 출간 등의 결과물을 도출한다. 현재 종교분야와 인권 침해/차별 분야, 에이즈 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섭외 중이다.

- 매년 2-3분야의 연구과제/관련분야 전문가 선정

- 연구분야별 3-12개월의 연구기간 설정, 연구비 지급

- 동인련 활동가들과 함께 연구와 세미나 진행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심포지움 개최

- 논문집 또는 단행본 출간

출판사업

동인련은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자료가 매우 빈약할 뿐 아니라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하반기 중 동성애자 차별에 관한 단행본을 출간을 시작으로 매년 3-5권의 동성애자 관련 단행본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2002년 하반기: 출판사업 시작, 유통망 확충

소식지발간사업

타블로이드판 소식지, 다이크를 격월로 발간하며, 국제 연대를 위해 영문 요약판을 발간하기로 했다. 배포 범위는 동인련 지지자와, 민간단체 200여곳과 관련 정부기관, 외국 단체/기관 등으로 정하였다. 무료배포를 원칙으로 한다.

에이즈사업

동인련은 한국에서 에이즈 정책과 관련한 운동이 매우 미진하다는 판단하에 그간 동성애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개입하던 에이즈 사업을 확장하며, 먼저 동인련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에이즈 사업 전담부서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에이즈 예방사업은 무료콘돔 배포 사업을 기조로 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 보급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도 하였다.

에이즈 정책 감시, 감염인 인권,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에이즈 관련 예산에 대한 감시 등을 주축으로 에이즈 정책의 정립과 감염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재정확충사업

향후 진행할 여러 사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정확충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수익사업은 후원행사 개최, 배지와 책자 판매 등 기존에 진행하던 정도의 수준으로 한정하고, 국내외의 각종 공익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후원회를 조직,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현재 후원회장, 부회장의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상근활동가 채용

자원활동에만 의존한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식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표와 박종익 상근활동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하반기중 상담사업과 출판사업의 상근활동가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소식지를 재발간하며

[Dyke]는 동인련의 전신인 대동성애자인권연합(대동인) 시절부터 발행해온 동인련의 소식지입니다. 다이크란 과격함, 또는 급진적인 레즈비언(또는 여성)을 가르키는 말로 이는 우리 단체의 앞장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대동인 시절 발행한 다이크 때문에 대표가 보안수사대에 긴급체포되는 등 우리엔겐 사연이 많은 소식지입니다. 단체의 소식지는 그 단체의 활동을 보여주고 그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장입니다. 우리가 그간 여권을 핑계 삼아 소식지 발간을 하지 않은 것을 깊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이크지가 꾸준히 발행될 수 있도록 무한한 지지를 보내주길 바랍니다.

INDEX

머릿기사	1
사업계획/사업보고	2-3
사는 이야기	4-5
엑스존 소송	6-7
트랜스젠더호적 변경	8-9
에이즈 정책	10
칼럼	11
광고면	12

동인련의 원칙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적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2. 우리는 성별, 인종,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성적 소수자들 내부에서의 어떠한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4.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비롯한 계급적, 계층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5.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조직과 유지에 기여한다.

6. 우리는 다양한 동성애자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노동자, 여성 등 억압, 탄압, 소외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8.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9.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10.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단체간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성적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2002년 상반기 사업보고

2002년 1월 9일

엑스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기자회견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동인연을 포함한 14개 단체)은 엑스존을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과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찾기위한 첫 재판이 행정법원을 통해 진행되었고, 2002년 8월 14일 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02년 1월 18일부터 20일(2박 3일)

제1회 겨울 동성애자 인권캠프 개최

'2002 겨울 동성애자 인권 캠프'는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주최하고, 한국 인권재단의 공식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2001년 인권단체 사업지원기금) 한국 인권재단의 후원으로 진행 된 이번 캠프는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Express yourself + again'란 모토에 따라 인권교육을 통한 동성애자 스스로의 자긍심 고취와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억압, 자기혐오에서 벗어나는 동기부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에 대한 색안경을 벗고, 동성애자들은 올바른 동성애 문화와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년 1월 22일

임태훈 동인연 대표 검찰 조사

동인연 임태훈 대표, 보안수사대에 긴급체포되어 남영동 대공본실로 연행. 긴급체포 사유는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불구속으로 다음날 석방. (2001년 9월 17일) 2002년 1월 22일 위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으로 4시간 동안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음. 다이키지 내용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 했으며, 매향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하려고 함. 현재까지 정식재판에 회부되거나 무혐의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2002년 3월 10일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18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 참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제18회 한국여성대회 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3.8 세계여성의 날, 동인연은 시민단체에 참여하여 레인보우 뱃지와 검열반대 불루리본뱃지를 판매하였다. 또 문화연대와 함께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위한 "박"터트리기,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는 동성애자 탄압과 사형에 대해 항의 캠페인을 진행, 동성애자 인권탄압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 매체심의위원, 전문위원의 신상을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마녀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2002년 3월 20일

동성애자 차별적 사전 실태조사 발표 및 진정

[MBC뉴스] 동성애 사전적 의미 수정 촉구

국내 5개 동성애자단체 대표는 20일 국내에서 발행되는 국어와 영어사전에 실린 동성애 관련단어의 의미가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비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국내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사전이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의미를 서술함으로써 동성애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올바른

의미로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진정서 제출 단체: 고려대 동성애자모임 '사람과사람' / 동성애자인권연대 / 서울대 이반운동모임 '마음006' / 연세대 이반공동체 '점투게터' / 한국외국어대 동성애자모임 '외대이반' 이상 5개 단체

2002년 4월 28일

동인연 사무실 이전

신당 4거리에 위치한 흥인동 옛 사무실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어서 새 사무실을 물색하던 중 길 건너 비교적 입지조건이 좋은 건물로 이주하였다. 신당동 지하철 6호선역과 2호선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으며, 지하는 노래방, 1층은 슈퍼와 시골청국장 2층은 생맥주집, 3층은 PC방이라 예전 건물과 달리 활용도가 높으며, 화장실도 깨끗하다.

-동인연 활동가들과 회원들 이사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2년 5월 25일

동인연 활동가 오세인 4주기 추모식

동인연 활동가와 지지자들을 모시고 극영화 스톤윌을 관람하고 제사를 지낸 후 함께 음식을 나누며 고인을 추모했다.

2002년 5월 30일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

현재 한국사회내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동인연 주최로 개최하였다. 오랜시간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속에 방치되었던 한국의 성전환자들의 호적정정을 위한 첫 토론회였다.

2002년 6월 10일

HIV/AIDS 감염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집회

지난 4월 국립보건원에서 감염인 지원 중단(면역체계검사, 바이러스수치검사)을 발표하였다. 이에 동인연의 제안으로 인의협과 보건의료단체, HIV/AIDS 감염인 모임 Love4One으로 구성된 긴급대책위를 마련해 성명서를 발표, 이날 국립보건원에서 감염인 의료권 관련 회의가 있어 다른 사회단체와 함께 국립보건원 정문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갖고 국립보건원장 앞으로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2002년 6월

다음 카페 이반 '금칙어' 대응

2002년 5월 14일 시행된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카페측이 "이반"이란 단어를 금칙어로 선정한 후 "Forbidden Lover"를 비롯한 여러 카페에서 대응 요청을 해왔다. 이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여 "이반 금칙어 철회의 의사가 있는가?"를 물었으나 (주)다음 법무팀에서 6월 17일 "'이반'으로 검색시 음란성 자료들이 많이 노출되므로 청소년보호법 준수와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제한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는 기존의 다음 사용자들이 받았던 답변과 동일한 것으로 현재 (주)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와의 면담 요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후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야기자리(매주 토요일 2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과제나 취재 등을 요청하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에서 그 주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무실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영화 상영(매주 토요일 4시)

강금실 변호사님이 기증한 아주 큰 TV로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영화를 상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주 목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영화를 보고나서 간단한 다과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녀와 나무꾼의 신혼일기

동인련 회원의 사는 이야기

가족들이 인정 안해 주면

누구에게 인정 받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 삼촌의 모습이 본 모습인 것을

넘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노릇

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우리의 도리를 다하리라 마음 먹는다



나는 정신과 환자를 돌보는 간호와 대학원공부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바쁘지만 한데 요즈음은 중강이후 4일간의 휴일을 보내고 있어, 모처럼만에 작은 베란다에 놓인 꽃들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을 마시는 여유를 누리며 우리집 아저씨와 함께한 결혼생활을 돌이켜 본다.

잊지말자 6.25 상기하자 6.25(?)는 다름아닌 우리의 결혼기념일인데 며칠 전이 그날이어서 엄마와 함께 촛불 켜고 케익을 함께 먹었다.

그이와 나는 인터넷 이메일이 인연이 되었다. 열렬한 연애 3개월을 거치면서 친구들과 상견례를 하고 우리는 손으로 만든 청첩장에 동성애자부부로서 새출발한다는 말로 친구들을 초대하였다. 그이의 이성애자 친구 3명, 그리고 나의 동성애자 친구 2명이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이성애자들은 결혼 때면 주위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나 하고 마음도 아팠지만 그래도 축복해준 친구들이 있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친구들 앞에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약속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신혼생활의 첫걸음은 신혼여행이었다. 이성애자 커플은 결혼휴가를 7일이나 받을 수 있지만 그이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결혼식 날이 지난 일주일 후에 따로 여행을 가야 했는데 속초로 가서 설악산과 경포대를 다녀왔다.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이와 나의 커플룩아웃 두벌을 준비하였는데 (망사로 된 뽀빠와 런닝) 어찌나 떨리던지..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한밤에 패션쇼도 아마 잊지 못할것이다.

우리집 아저씨는 운전노동자이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간다.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는 그를 위해 나는 매일같이 빵과 과일 그리고 음료수 하나

를 가방에 챙기는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외아들이면서 막내로 자라나 음식과 집안정리를 거의 해본적이 없다. 엄마와 함께 사는 우리는 엄마의 신세를 늘 지며 살아가고 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행복과 함께 어려움도 따르게 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커밍아웃의 문제였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친구 사이로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생활하면서 엄마에게 먼저 커밍아웃을 하였다. 엄마는 무척이나 당황해하셨고 [내자식이 왜?]라면서 화도 내셨지만 이왕 그렇게 약속을 하여 부부의 연으로 살기로 하였다니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미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였다.

다음은 형제들 차례였다.

누나들은 그냥 그랬었나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고 우리를 나무라거나 비난하지 않아서 너무도 고맙다. 조카들은 우리집 아저씨를 삼촌이라 부르면서 잘 따른다. 동성애자로서 가족들에게 인정 받는 것 또한 너무도 어렵고 힘든 문제구나 하는 것을 새삼느껴보게 된다.

그이의 집안에서는 형수님은 무척 놀라셨지만 담담하셨고, 형님은 얼마 전에 아버님과 함께 만났는데 나에게 눈길도 주질 않으셨다.

내가 태어나서 나 자신에게 수치감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고 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해야 하나?] 하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형님은 그이에게 [인정 받으려 하지말고, 조카들에게 평범한 삼촌이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가족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인정받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삼촌의 모습이 본 모습인 것을... 넘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사람노릇 저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우

리의 도리를 다하리라 마음도 먹어본다. 올해는 남동생에게 커밍아웃을 계획 중이다. 잘돼야 할텐데...

결혼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은 인생의 동반자가 있다는 든든한 안정감이다. 한번도 입원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장염이란 놈이 나를 괴롭혀 2주간 입원을 해야 했는데 그 새벽에 배가 너무도 아파 내가 다니는 병원의 응급실 신세를 지야했을 때 그

이는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돌보아주었다.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이고 외로움이 밀려오는데 오빠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이와 나는 386세대로 학생운동을 경험하였기에 가치관이 비슷하여 집회도 함께 나가고 민중가요 콘서트에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다닌다. 정치와 사회이야기도 나누고 지난 6.13대선 때는 그이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여 너무도 기뻐했다. 왜냐하면 나는 부부당원이 되는게 작은 소망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동인련에서 하는 캠프, 작년 5월 대학생캠프와 올해 초에 열린 인권캠프에 함께 다니면서 동성애자의 삶과 해방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서 너무 좋았다. 특히 인권캠프에 다녀오면서 형수님에게 우리가 동성애자부부라는 것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내리게 된 것도 언제나 어디서나 동성애자임을 밝히려는 원칙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신혼 초에 전세를 살다가 작년에는 작은 아파트를 하나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집이어서 실내 페인트를 직접 칠하고 한지도 붙이고 하는 작은 재미도 느껴보았다.

요즘 그이는 택배운전을 한다. 하루 열두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에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파온다. 오늘의 피로를 다 날려버리라고 커피를 타주며 위로를 하고 우리가 젊은 날 열심히 노동하여 이 다음에 노후와 문화생활을 가져보자고 다짐하면서 요즈음을 보내고 있다.

(오른쪽 면 이어서)

故 오세인 4주기 추모사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98년 5월 17일 새벽, 우리 회원 오세인씨는 사무실 복도에 목을 매 죽었습니다. 그 해 초부터 그는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무엇도 아닌, 순전히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몇 차례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직 나이 어리고, 아직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그가, 주머니에 몇백원도 지나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가 살던 상도동에서 사무실이 있던 용두동까지, 차비도 없이 쫓겨난 그가,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오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떠올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동성애자들에게 모든 게 그렇게 부질없나 봅니다. 천륜이라는 가족도,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도, 애써 일군 직장도, 우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끌어안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불안합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간절히 내보이고 인정받고 싶어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릴 이 사회로부터 내동댕이쳐지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이 사회에서 태어난 이상 적어도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을 듣더라도, 간혹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무엇보다 그저 안전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구박을 받더라도 가족 안에 머물고 싶고, 힘들더라도 정든 학교와 일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세인씨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이전 없었으면 합니다. 진정 오세인씨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회가 내팽개친 이들을 끌어안아야 하고, 이 사회가 우리를 저버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자로서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그의 죽음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당연한만큼 또한 너무나 슬픔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회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힘없고 억압받는 이들의 슬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에 앞서 분노하고 싶습니다. 분노만이 우리의 슬픔

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세인씨는 지금도 우리에게 힘든 여러 일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나아갈 뿐, 우리가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없이 죽은 수많은 동성애자들의 혼령 앞에, 그리고 살아 있는 동성애자들 앞에 약속합니다. 동성애자가 이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겠습니다.

2002년 5월 17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생전의 오세인씨, 우리 단체 사무실 앞에서

그이는 나에게 중고 자동차를 하나 선물하였는데 시간이 될 때 운전연수를 오빠에게 받은 후 지방에 사시는 아버님에게 놀러 가고 싶다. 그리고 여행도 함께 가고...

우리에게 꿈이 하나 있다면 동성애자 결혼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완전한 평등은 법 앞에 평등 즉 법적 평등만이 완전한 것이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모든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다.

연금과 보험을 들면서 알게 된 사실은 국민연금은

싱글로 사망하게 되면 국가로 환수되고 형제가 주 민등록상에 있어야 형제상속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사보험도 제3자 상속이 불가능한 보험회사가 있다는 사실에 난 너무도 어이가 없다. 이러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불평등이 얼마나 많이 동성애자를 억압하는지 느낄 수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집 집들이를 이번 달 21일에 할 예정이다. 동인연 식구들을 초대해서 그날이 중 복날이니 선녀와 나무꾼이 살아가는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삼겹살과 수박파티를 할 예정이

다.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격려를 아낌없이 해준 동인연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기동

동인연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으로

본업은 간호사이다.

정신과에서 근무하며 서울 근교에서

달콤한 신혼을 보내고 있다.

엑스존 행정소송

동성애자 차별하는 청소년 보호법은 없어져야 한다

우리 단체는 동성애자 사이트인 엑스존(exzone.com)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규정된 것을 발견하고 여러 동성애자 단체들에 이 사안에 대응할 것을 설득하여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이라는 연대조직을 꾸렸다. 동성애자차별반대공동행동은 엑스존에 관한 유해매체물 규정을 철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이번 8월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엑스존 행정소송 경과 보고

2000/08/25 정통윤,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국내 최초의 '동성애' 사이트로 개설되어 웹커뮤니티의 형태를 갖추고 이미 만 3년이 지난 엑스존에 대하여 정통윤은 '동성애'를 소재로 하였다는 이유로 음란사이트 결정을 내렸고, 정보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

2001/07/28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을 위한 최종 전체회의

동성애인권단체와 활동가들, 그리고 웹마스터들이 참여한 실무단회의에서 논의된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조직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인준, 집행위원 선임과 각 실무팀 조직을 구성.

2001/07/30 이반씨터 접속불능과 동시 동성애사이트 공동파업 긴급실시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었으나 이반씨터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원래 7월 31일부터로 예정되어 있던 동성애 사이트 공동파업을 엑스존은 하루 앞당겨 긴급실시.

2001/07/31 발족식 및 기자회견 / 정통윤에 질의서발송

참여단체 및 대표소개, 인터넷 검열실태 발표, 동성애자 탄압사례 발표, 지지발언, 발족선언문 채택, 공개질의서 채택, 질의응답으로 이어진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식과 기자회견에 많은 사회단체들의 지지참여와 언론들의 취재가 이루어졌으며, '동성애 퇴폐 2등급 규정'이 모든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통윤에 공개질의서 발송.

2001/08/01 정통윤, 내용등급제와 성적지향에 관련한 공식입장 최초표명

동차공의 기자회견 이후 정통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일부 네티즌이 등급기준에서 동성애사이트를 퇴폐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등급기준에서는 동성애와 이성애를 차별적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인터넷불건전사이트 선정기준"의 존재를 부인하는 공식입장을 발표.

2001/08/02 정통윤발표에 대한 동차공의 반박성명과 근거문서 공개

4월 24일 공개된 인터넷불건전사이트 선정기준에 의하면 동성애는 퇴폐 2등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차공은 근거문서를 공개하여 반박.

2001/08/10 정통윤앞 1차 '항의집회' 및 공개질의

동성애자와 시민단체 분들을 포함한 60여명의 사람들이 정통윤 앞에 진을 치고 앉아 진행된 화려한 항의집회.

"해외불건전전 사이트 선정기준과 동성애 사이트 폐쇄에 따른 질의 및 요구"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정통윤에 접수.

2001/08/12 내용등급제의 동성애 부분에 관한 질의 답변서

7월 31일 접수한 질의서에 대해 "다만, 본 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성애 관련 인터넷사이트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동성애 퇴폐 2등급 규정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등급기준에는 동성애 퇴폐 2등급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삭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역시 문제의 발단이 된 '인

터넷불건전사이트 선정기준'의 존재를 부인.

2001/08/26 IGLHRC-국제연대액션메일 발송

IGLHRC(국제게이레즈비언인권위원회)는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에 연대하여 인터넷 내용등급제로 불거진 우리들의 현실을 전세계의 회원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액션메일 발송.

2001/09/09 동차공 정보법 간담회 보고

문화연대의 정보법공동대위측과 간담회를 갖고, 정보위에 정보법 개정의사가 있는지, 동성애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법공동대위'측에서 질의서발송.

2001/09/17 정보법상의 '동성애' 조항에 관한 정보위측의 답변

'우리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비취 동 기준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심의과정에 있어 동 기준의 규정취지에 맞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례적이고도 책임회피성 답변.

2001/10/10 정통윤의 엑스존 재심결과

동성애 관련 정보내용 외에 음란성 정보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결정사유를 변경할 이유없다며 기각.

2001/11/09 정통윤의 협박성 고지와 엑스존 항의성 사이트파업!

인터넷등급제에서 요구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적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정통윤의 협박성 메일에 엑스존은 항의성 사이트 폐쇄를 결정.

2001/11/27 정통윤에 엑스존 심의 정보공개 청구 공개질의서 접수

2001/12/23 엑스존 재심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엑스존 재심의 기각 증거자료(정통윤 제시), '음란'을 '동성애'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어이없는 재심의 회신내용.

2001/12/29 엑스존,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통신악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원본적인 의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하고 현명한 해답을 기대한다"며 동성애자 차별법 철폐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

2002/01/09 엑스존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 행정소송 소장 발송 (법무법인 한결)

2002/02/06 엑스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대책회의와 포럼개설

2002/02/20 국가인권위원회 방문과 행정법원 제출용 준비서면 작업

2002/04/16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피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2000. 8. 25.자로 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원고에 대하여 2000. 9. 27.자로 한 고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제출.

2002/05/16 행정법원에 준비서면 제출

2002/06/08 첫 공판 전 대책회의

2002/06/12 엑스존 행정소송 첫 공판

많은 동성애자 분들이 첫 공판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으며 공판은 간단하게 진행. 8월 14일 결심결정.

2002/06/17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동성애' 조항관련 질의서발송

2002/06/18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사건에 대한 의견요청서 제출

2002/08/14 결심공판 예정

엑스존 행정소송 원고 “엑스존 운영자 중전” 인터뷰

1.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을 1년 후에 아셨는데, 당시 심경이 어떠셨나요?

개설 당시부터 엑스존은 동성애를 소재로 한 최초의 홈페이지라는 이유와 오해로 음란, 불온, 유해 등의 논란이 많이 있었으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호모포비아들에게 수차례 사이트해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불식시켜가며 드러내기 싫어하는 동성애자들을 웹을 통해서나마 담없이 끌어내어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하고도 가혹할 정도의 관리기준까지 두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해하기 힘든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고 한마디로 기가 막혔습니다. 동시에 이게 바로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현실이라는 사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2. 소송을하기로 결정하신 계기는 어떤 것인가요?

저는 동성애자들의 홈페이지인 엑스존을 운영하는 웹마스터 개인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동성애자로서 가당치도 않은 법률과 제도에 의해 부당한 규제를 받게되었고, 그런 것들에 그저 묵묵히 순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엑스존을 사랑하던 수많은 친구들은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의 삶과 생활을 만 4년 동안 엑스존이라는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담아왔습니다.

엑스존은 우리 모두의 얼굴이었으며, 자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정통문과 정보위가 법과 제도를 칼과 방패 삼아 우리의 자존심에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그들의 불췌없는 무기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법과 제도를 바꾸어 버리기 위한 ‘법적 대응’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3. 동차공 활동을 하면서 힘들거나 안타까웠던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동성애자 차별 반대 공동행동’은 말 그대로 이 땅의 마이너리티인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에 모두 힘을 모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공동행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대한 모든 사람들이 당장은 동성애자 차별이라는 단순한 표제에 저항하지만 결국은 ‘모든’ 형태의 차별과 편견에 저항하는데에 결국 ‘공감’을 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활동과정과 대내외적인 논란들 사이에서 겪어 본 바로는 그 간단한 ‘공감’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심히 어려운 만큼 두터운 장벽이 우리들 각자의 관념속에 많이 남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 느낌을 혼자 소화시켜내는 과정이 어려웠다면 어려웠겠지만 힘들거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동차공의 행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지금 현재는 우리 모두 안에서 자연스런 ‘공감’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대해 고민하는 중입니다.

4. 혹시 패소할 경우에 차후 어떤 활동을 전개할 생각이신가요?

인터뷰 질문의 내용이 ‘승소’라는 용어도 있는데 ‘패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저로서는 못마땅합니다.^^

소송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승소나, 패소나 결과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으고 구색을 갖춰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에 당당하게 저항했습니다. 만일 엑스존 소송이 불행하게도 패소를 한다면 ‘아직도 시기상조’이거나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인물들의 사고가 후진성을 면치 못해 벌어진 미숙한 결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미숙한 것은 다듬어져야 하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성숙한 모습을 갖추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심도 나기 전에 패소를 전제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엑스존 행정소송 대리인 “이상희 변호사” 인터뷰

1. 동성애자 문제에 개입하는 데 있어 심리적 부담은 없었나요?

동성애자들을 친구로 두어서인지 심리적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엑스존 사건을 다루면서 나도 별 수 없이 고정 관념에 못 박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성애자들 사이의 대화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하여, 동성애자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어느 정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뢰인인 엑스존 운영자가 나의 이런 심리상태를 불안해했지만, 결국 그들과의 대화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2. 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동성애자와 관련하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린 시절 동성애자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줄 알았어요’라는 어떤 동성애자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부정확한 지식은 동성애자들에게 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수적 다수인 이성애자들에게는 잘못된 고정관념의 성벽만 두텁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깊은 사생활에서의 다양성 인정, 서로에 대한 존중, 그를 위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동성애 표현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입니다.

3.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날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동성애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기준으로 삼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관련조항이, 개인의 성적지향을 부인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다’라는 법원의 판시가 나오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4. 동성애자 운동이 어떤 면에 더욱 중점을 두어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제도에서 뿐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 동성애가 완전히 인정받는 그 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동성애 문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본인이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것은 동성애 문제를, 삶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문제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당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자 사이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연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으로 살 권리: 성전환자 호적 변경

성전환자 호적 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

1. 한국 성전환자의 상황 (임태훈 동인연 대표)
2.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 법안 검토 (이석태 동인연 자문 변호사)
3. 성전환자 호적 정정 법안의 배경과 쟁점 (김명신 김홍신의원 비서관)
4. 관련 토론 (참석자)

일시: 5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제2배움터

임태훈 동인연 대표의 발제와 이석태 변호사의 트랜스젠더 호적 정정 법안 검토, 그리고 김홍신 의원실의 김명신 비서관이 호적정정 법안과 관련된 진행사항과 쟁점사항 향후계획에 대한 발언을 한 뒤 자유토론을 가졌다.

먼저 김명신 비서관은 이 법안을 다루게 된 이유에 대해 김홍신 의원실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향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기존에도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과 관련되어서 몇몇 의원들이 추진하긴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번번히 무마되었던 것을 보았고, 트랜스젠더 하리수의 등장으로 트랜스젠더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어느 정도 사회에 여론이 형성되어 시기가 되었다는 판단으로 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임태훈 동인연 대표는 성전환자 호적정정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소토론회 발제에 나서 성전환자의 정의 및 성전환 실태, 성전환자의 기본권, 차별적 법률적용, 그리고 호적정정 법안 제정시 고려해야 할 점과 성전환에 대한 각국의 법적 태도에 대해서 말하며 트랜스젠더 호적정정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에 관한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변경)문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의 문제로 파악해야 된다고 말하며, 김홍신 의원실에서 제시한 입법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어감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호적정정의 자격요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명신 비서관은 성전환자 호적정정 입법안에 대해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많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듣고 싶어한다고 말했으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입법안을 추진하게 된 동기에 대한 말과 함께 이번 7월 10일 이 법안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할 것이며 이 공청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관한 법안을 준비하며

김홍신 의원실 비서관 김명신

법안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신문을 통해 성전환자들이 호적상 성별변경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연예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성전환자가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가능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서면질문과 자료조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인정사례가 두 차례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법원은 엄격체 구성여하에 따라서만 성별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검토 결과, 스웨덴, 독일 등 몇몇 유럽국가에는 이미 성전환자의 호적을 변경해주는 법이 일찌감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술을 통해 외관상의 신체적 성을 반대의 성으로 바꾼 채 살아가고 있는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의 변경은 절실한 것이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특별법만 제정된다면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성별의변경에관한특별법안」을 마련했고, 사회각계각층의 검토의견도 조취하고 있는 과정이다. 7월중으로 법을 발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회 법사위를 통해 논의될 것이다.

김홍신 의원이 발의하게 될 이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 안될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인식이 법안통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 중 진보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많은 단체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마련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 차원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획득을 위한 법안을 다루었다는 것 자체로도 진일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향후 성적 소수자의 인권획득에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어느 사회나 가장 느리게 변하고, 보수적인 것이 바로 법이다.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도 역시 사회의 일반흐름에 비해 상당히 느리게 대처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 소수자를 포함해 우리 사회의 많은 소수자의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회가 변하기 어렵다면 국회의원 중 일부라도 변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결국 국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이 필수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성애자인권연대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필요할 것이다.

성전환자 호적 변경 법안에 대한 동인련의 의견

동인련은 김홍신 의원의 요청에 따라 성전환자 호적 정정 법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호적정정 법안에 대한 소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과 우리 단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정하였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이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을 비롯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뒤늦게나마 이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김홍신 의원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과 타고난 생물학적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살아왔다. 성전환자들은 정상적인 가족을 꾸릴 권리도 없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권리도 없이, 심지어 자신의 성으로 살 권리도 없이 살아왔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성전환수술 비용을 스스로 충당하기 위해, 식당의 허드렛일을 하거나, 매매춘에 종사해 왔고, 가까스로 성전환수술을 하더라도 암색체에 의해 성별을 판단한다는 법원의 억지 판단 때문에 끝없는 고통 속에 살 수 밖에 없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다시 한 번, 이번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전환자를 비롯해 이 사회에서 차별받는 모든 성적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바란다.

1. 용어의 문제

성전환증이나, 환자란 표현은 부적절하다. 성전환(transgender)은 하나의 성향 또는 성적 주체성의 차이일 뿐이며, 질병으로 볼 이유는 없다. DSM4(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ourth Edition.)에서는 성전환이 질병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성적 주체성 장애와 성전환자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여기서 성적 주체성 장애라는 표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성의 전환을 뜻한다는 의미에서이며, 성전환자란 표현은 성전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주체성 장애를 가진 이를 표현한다. 수술 여부는 경제적 여건의 문제나 개인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전환자는 성적 주체성 장애를 가진 이를 포괄하고, 기존에 성전환자라 부르던 성전환 수술을 한 이들은 단순히 '성전환 수술을 한 자'로 표현하면 된다.

2.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성전환 수술은 성전환자가 원하는 성의 외양을 갖추는 것으로,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조건이다.

성전환 수술은 상당한 비용이 드는 데 반해, 성전환자 대부분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 이들에게 수술비용 마련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상대로만 호적 변경을 한다면, 이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극소수 성전환자에 대한 혜택으로 그칠 것이다.

성전환자의 호적 변경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성전환 수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정부의 지원은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나 정부 출연금의 조성 등이 검토 가능할 것이다.

3. 성전환자의 판단

성전환 수술과 호적 변경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결단이 필요한 만큼, 그 요건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가. 성전환 수술 이전에 호적 변경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성전환 수술을 마친 뒤에 호적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다.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호적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전혀 불가능하다. 성전환 수술에 앞서 의료비 지원 심사와 아울러 호적 변경 여부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

나. 성전환 수술의 성공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의학적 기술의 미비로 호적 변경을 막는 빌미가 될 수는 없다.

다. 현재 미혼일 것이란 조항은 불필요하다. 현재 혼인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호적 변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혼인 상태가 해소되어야 한다.

라. 병역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아야 한다는 것은 호적 변경 여부와 관계가 없다. 이 조항은 호적 변경이 가능한 연령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호적 변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호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차이에 의한 합리적 차별이란 측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마. 계속하여 생식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은 사족이다.

바. 성전환자의 판단은 의료비 지원 심사와 호적 변경 여부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판단은 성전환 의사가 진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심리학자 인과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인으로 족하며, 지속적인 성적 주체성 장애를 느껴왔다는 知人들 수명의 보증이 부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 사항에 대한 문의는 동인련 사무실(02-2235-7422)과 담당자(016-221-0864)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특별 에이즈 방역대책이라면서 지원하던 에이즈 감염인 검사비용까지 끊다니!

정부는 올해 4월 15일 "월드컵 등 국제행사 대비 에이즈 예방 홍보 캠페인 집중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국립보건원이 중심이 된 민간합동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올림픽 개최이후 에이즈감염이 대폭 증가했고 월드컵을 개최한 다른 나라의 경험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대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 계획이 채 잉크도 마르기전 4월 22일 한국의 에이즈감염인과 환자들에게 지원하던 정기 에이즈검사비용 지원의 중단을 통보하였다. 이후 에이즈감염인들은 검사비용을 자비부담하기 힘들어 관리와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인들의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정부의 에이즈 특별방역대책인가? 더욱 한심한 일은 이러한 조치에 항의가 계속되자(2002.5.17 성명서 참고)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안인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국립보건원에서 검사를 대행하겠다"는 안은 현재 국립보건원이 바이러스 정량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또한 설사 앞으로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이 검사결과가 민간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다.

에이즈 검사 및 치료비용을 전액지원하라!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인은 현실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가 없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비밀보장조항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숨김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생계보장과 치료 및 검사비용 지원이 없으면 에이즈감염인들은 "운 좋게 부유하고 편견없는 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 치료는 엄두를 못내고 죽음을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생계보장과 검사 및 치료비용지원이 없을 경우 이번 여수 에이즈감염인의 사건에서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최악의 경우 어쩔 수 없이 매매춘을 해야 하는 상황이 필연적이다. 물론 제 2, 제 3의 여수사건도 필연적이다.

그런데 정부는 생계보장의 적극적 에이즈대책은 커녕 기존의 검사비용 및 치료비용지원까지 삭감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월드컵용 생색내기 방역대책이 아니다. 기존에 지원하던 검사비용마저 떼먹는 판에 무슨 월드컵용대책이 필요한가? 에이즈를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에이즈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을 전액지원하라! 지원중단된 정기적 에이즈검사비용 지원중단조치를 즉각철회하고 에이즈 검사 및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검사 및 치료비용을 전액지원하라!

기존의 정기적 에이즈검사비용 지원중단을 철회하라!

에이즈 검사비용 및 치료비용을 전액 지원하라!

2002. 6. 10

HIV/AIDS 감염인 모임(Love4one)/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경인지역의과대학학생회협의회 / 동성애자인권연대 / 민중의료연합

한국에서 에이즈 감염인이 사는 방법

■ 한국에서 에이즈감염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취급당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으로 낙인찍힙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교과서에 에이즈를 성적문란의 결과로 홍보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이 때문에 인권탄압의 혐의로 인권단체에 기소당한 상태입니다.

■ 한국의 에이즈감염인은 비밀보장의 권리가 없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에이즈감염인들이 노란 별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이즈감염인의 비밀보장의 권리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에이즈 감염인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당연한 듯이 비밀보장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에 의한 이에 대한 항의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이즈감염인들은 예외 없이 직장에서 퇴직을 강요당합니다.

■ 정부가 생계보장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비지원도 안합니다.

직장이 없으니 생계보장이 안됩니다. 가족들이 교과서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라고 낙인찍힌 에이즈감염인을 보호할 것도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생활은 유지한다 해도 치료비는 감당을 못합니다. 정부가 검사비용과 치료약제 공급은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이것도 3-10개월 뒤에 사후지불로 말입니다. 에이즈감염병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해야 하니 6인실과의 병실차액료가 붙습니다. MRI와 CT, 초음파 등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운 좋게 편견없는 부자가족에서 태어나지 못한 이상 에이즈감염인은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여수에서 발생한 에이즈감염인의 매매춘종사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적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 정부는 이제 지원하던 정규 검사비용마저 지원중단하겠다고 합니다. 월드컵 개최국인 한국! 에이즈 감염인 인권은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금실: 세상을 여는 슬픔



강금실 변호사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이며
인권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올 해 2월에 있었던 제주인권 학술회의가 끝난 후에 나는 그 회의에서 만난 게이인권운동가 지용, 태훈을 따라 게이 바에 갔다. 그곳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 그들과 어울려 그들의 게이친구들을 만났다. 특별한 체험이었다. 이성애자로 굳게 믿고 있으나, 아직 성적채성이 분명치는 않은 듯도 한 내가, '일반'은 가기 어려운 게이들의 문화장소에

갔다는 점에서 그것이 특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곳에서 너무 편안하고, 정적과 같은 평화가 나를 포근히 안아주어서 마치 마음 속 깊은 곳에 오래 묻혀 있었던 우물가 집을 찾아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예상치 못한 느낌이 내게 특별한 것이었다. 남성들이 많은 술집의 큰 목소리들과 금방 튀어나올 듯한 거칠음도 아닌, 여성들 스스로 수다로 자처하는 그 상쾌한 시끄러움도 아닌. 무언가 미묘한 듯도 하고, 섬세한 침묵 속에 잠긴 정서와도 같은 그 분위기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곳에서 만난 게이친구 지훈은 내게 들고다니는 노트에 적어놓은 자작시를 읽어 주었다.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할 수 없으나 시 전체에 흐르는 느낌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K의 감성을 연상시켰다. K의 시는 여느 시와는 달리 영혼의 모세혈관을 건드리는 듯한 아련 눈물로 가득차 있다. 그는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라고 적어놓았다. 집은 존재가 깃드는 지상의 마지막 장소이다. 사랑 또한 존재의 거처이다. 시인은 집으로 들어갈 수 없고, 사랑은 시인이 없는 곳에 차단되어 있다. 시인은 존재의 근원에서 사랑의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세상의 진입로 밖에서 세상의 바닥을 더듬으며 사랑을 찾는 자만이 느낄 수 있을, 치유할 수 없는 원천적인 슬픔이다. 나는 시인 K의 슬픔에 동참하여 울 수 밖에 없었는데, 지

훈 또한 그 지점에서 울고 있는 것일까.

사랑이 슬프다기보다는 사랑을 가로막는 여건과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사랑함만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슬프다. 사랑하는 사람마저 처음부터 계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여건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에서 한없는 슬픔이 세상을 적신다. 너는 사랑하는가. 너는 사랑에게 얼마나 솔직한가. 너는 그 사랑의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얼마나 고뇌하는가. 이것은 존재로서의 우리가 피하여나갈 수 없는 근원의 물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이 물음에서 모든 삶의 씨줄과 날줄들이 풀려나와서 매듭을 짓고 엮으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 사랑의 물음에서 세상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고, 나는 아직도 생각한다.

지용, 태훈을 따라 게이바에 간 것이 두달 남짓 되었다. 나는 아직 모른다. 게이들 속에서 그들의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세상의 평화가 열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위안을 준 것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다만 나는 게이들 속에서 내가 K의 시를 읽으며 울었던 그 슬픔을, 사랑의 상실감을 공감하였던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여성과 남성으로 가득찬 이 세상이 동성애자들에게 완강하게 빗장을 걸어 잠갔을 때, 그들은 출입을 봉쇄당한 빈집에 갇힌 사랑의 상실감에 깊은 절망과 슬픔을 느꼈으리라고 나는 짐작할 뿐이다. 그 슬픔 앞에서 나는, 이성애자인 나는 사치스러운 뿐이라는 부끄러움 같은 것이 나를 사로잡은 순간이 있었을 뿐이다.

지용, 태훈은 인권운동을 한다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동성애자이며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자리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건네고 싶다. 짧은 나의 체험 속에서 나는 동성애자들이 세상의 슬픔에, 존재의 슬픈 본질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임을 느꼈다고, 누군가 세상은 슬픔이며, 슬픔을 나뉘어 가지는 것이 자비이며,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방식이라는 말을 하였고, 슬픔의 나뉘어짐을 실천하는 속에서 사랑이 제 모습을 드러내어 온 세상에 넘치는 그런 진정한 본연의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고.

강금실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동성애: '불온통신' 범주에서 제외될 듯

정통부, 불온통신 개념 구체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로 규정된 불온통신의 개념이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명확한 내용으로 구체화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조항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준용, 해당 조항을 구체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53조의 통신제한 내용을 크게 ▲불법정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구분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을, 불법정보의 개념에 대해서는 형법 등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소년유해매체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10조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형법, 선거법,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 등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 명예훼손, 상대방 비방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징집거부, 동성애 등 가치판단이 모호한 내용은 불온통신의 내용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번에 위헌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 관련업계의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받아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출처: 연합뉴스, 이정대기자)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97년 설립부터 5년 동안 한국 동성애자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동성애자를 비롯해 이 땅의 억압 받는 소수, 약자들의 인권을 위해 심 없이 투쟁해 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 단체와 우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지하는 수많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항상 더욱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려 합니다. 착박한 현실에 있는 동성애자들의 삶을 다독이고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내실을 다지려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힘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꼭 해야 할 일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슬프습니다. 우리가 비록 낙담해 보이더라도, 우리가 조금 현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뜻을 믿고 도움을 주십시오.

후원회원님이 하시는 일

| 동인련이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조언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 약정한 후원금을 내주시고,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해 주십시오.

(재정 후원 말고도 다른 도움도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님이 동인련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저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 동인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름 동성애자 인권 캠프

여름 동성애자 인권캠프 준비위원회
www.outpridekorea.com/camp
참가문의/신청 : 02-2235-7422

우리 할까
한 음란 요?



지난 해 대학동성애자캠프 사진



지난 해 대학동성애자캠프 사진

날짜: 2002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장소: 남이섬 기화유스호스텔